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평안남도 양덕군을 독특한 다기능체육문화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변모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신 군인건설자들과 도내인민들, 돌격대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대상건물팔조공사와 지붕외우기공사, 내외부미장공사가 계속되고 스키장주로타기와 도로개설, 수로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당에서 구상한대로 자연지대적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구형성되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구획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의 말씀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이곳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넣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재치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승강기와 굴림식사도를 비롯한 설비제작을 모두 주요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천휴양과 료양시설들에 대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부문에서 봉사준비도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녀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친지개혁되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폭풍같은 기세로 한개 도시구획형성과도 같은 방대한 공사를 해제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적으로 제일 전투력있는 이 부대에 건설을 맡기기로 했다고, 전문건설부대 못지 않게 건설을 잘한다고, 정말 힘이 있는 부대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끝없이 펼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열의, 무한대한 정신

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정책이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이 인민군대를 믿고 못해낸 일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당의 결심을 실천하는것, 당의 명령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화답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특유의 기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판철의 위력으로 실천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당의 구상은 곧 실천의 력사로 씌어져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런 군대와 함께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것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긍지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력적으로 받들어 이와 같은 훌륭한 인민의 소유물을 창조한데 대해 마땅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인건설자들은 깨끗한 땀방울로, 진한 피로써 조국의 수호자로서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서도 천년만년 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애국의 자욱,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총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정신으로 뚫고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도내인민들과 돌격대원들, 철도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하였다는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본사기자

### 공화국선수들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3개의 우승컵과 34개의 금메달 쟁취

공화국선수들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벨라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과 중국,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를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선수 9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은 우승컵 3개, 개인기술상 4개, 금메달 3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공화국선수들은 성인 남, 녀단체, 녀자단체맞서기, 남, 녀호신경기들과 청소년 남, 녀단체, 녀자단체맞서기, 녀자호신경기들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김현욱선수는 성인 녀자 개인 2단틀, 맞서기 47kg급경기에서, 합수경선수는 성인 녀자 개인 1단틀, 맞서기 72kg급경기에서, 김남수, 하금광, 왕명국, 림위석선수들은 성인 남자 개인 4단틀,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김향선수는 67kg급, 77kg이상급 성인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청소년 남자 개인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고금광, 문정룡, 강성선수들이, 녀자 개인 3단틀, 2단틀, 1단틀경기에서 김일향, 최선영, 김지홍선수들이, 청소년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김현아 선수가 각각 1위를 하였다. 청소년 16~17살부류 51kg급, 57kg급, 63kg급, 69kg급 남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한일명, 문정룡, 강성, 림도성 선수들이, 40kg급, 46kg급, 70kg이상급 녀자 개인맞서기 경기에서 김지홍, 윤소영, 최선영선수들이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성인부류에서 김남수, 합수경선수들이, 청소년부류에서 문정룡, 최선영선수들이 각각 개인기술상을 받았다.

본사기자

### 근로자들이 누리는 참다운 사회경제적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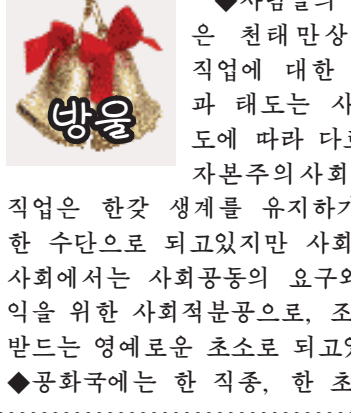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권리를 원만히 누리며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근로자들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루로동시간도 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정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회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은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공화국에서 로동의 권리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생히 앞세우며 대안 원칙과 로동보호

시설을 끊임없이 개선반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속에서 행사되고있다. 하부로동시간도 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정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으며 휴식의 권리도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이것은 8시간로동제에 의한 일간휴식, 일요일주간휴식, 명절휴식, 년간정기유급휴가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유양과 같은 휴식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이러한 휴식제도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들에 의하여 사회보장자들이 빠짐없이 등록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 지불되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정형은 정상적으로 료해장되어 필요한 대책들이 제때에 취해지고있다. 또한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사

회적범위에서 널리 조직되고 있어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은 날로 더욱 개선되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이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고있다. 국가는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물질경제생활을 참담히 누릴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특히 근로자들은 국가적혜택에 의하여 국가기본건설투자로 건설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사용료물거의 무로나 다름없이 매우 쉽게 지불하고있으며 그나마 농민들은 살림집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나라의 고마운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긍지를 안고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창조의 구슬땀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사람들의 직업은 천대만상이며 직업에 대한 편견과 태도는 사회제도에도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 한갓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사회적분공으로, 조국을 만드는 영예로운 초소로 되고있다. ◆공화국에는 한 직종, 한 초소에

서 학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외진 섬분교에 자원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에 전념하는 교육자들도 있다. ◆30여년세월 운행길에 깨우친 한 량심을 바쳐온 량뚝무늬도전차 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자들이 최후기, 허명금부부를 가리켜 사람들은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

에 대한 긍지가 없이 일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읊들수 없고 헌신성과 성실성이 나올수 없다. ◆애국심은 특출한 위훈을 세우는 데서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말은 초소에서 묵묵히 깨우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이다. 나 이와 직업은 서로 달라도 이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의 목소리는 하나이다. 《나의 직업,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